

너무 비싼 기성용, K리그 컴백 쉽지 않네!

재원 부족한 서울과 협의 단계서 결렬
서울 아닌 팀 이적면 거액 보상금 발생
큰 손 전북도 뾰족한 영입 방법 없어



1월 31일 뉴캐슬과 결별한 기성용의 새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정팀 서울과 전북 현대 중 한 팀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스포츠동아 DB

리아 종료까지 염두에 둔 선택을 해야 했다. K리그가 가장 이상적인 무대였고, 흐릿한 추억을 가득 쌓은 서울과 접촉했다. 서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약한 기성용을 셀틱(스코틀랜드)으로 완전 이적시키면서 'K리그 복귀 시 컴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양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이상 조율을 진행했고, 협의 단계로 근접한 정도도 포착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 구단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축구계 소식통은 5일 "재원이 부족한 서울은 핵심 선수 A를 해외로 보내고, 여기서 발생될 이적료를 최대한 활용해 기성용의 영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A가 잔류하게 되며 기성용의 상황도 함께 꼬였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 "기성용 복귀"는 항상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접촉 사실을 간접적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FA 신분을 취득하게 된 기성용은 행선지를 서울만 한정하지 않았다. 진로의 폭을 넓혔다. 서울을 배제할 때 현실적으로 기성용의 몸값을 부

담할 만한 팀은 전북과 울산 현대가 유일했다.

기성용 측은 최근 전북과 접촉했다. 구단이 아닌, 선수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협상 테이블을 열어보려 했다. 그렇지만 '서울 복귀' 조항을 풀기가 쉽지 않았다.

만약 서울이 아닐 경우, 거액의 보상금(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선수를 데려오면서 그에 준하는 자금을 들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연봉과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기성용이 뉴캐슬로부터 수령한 지급금은 6만 파운드(약 9300만원·세전)로 알려졌다. 약 1억 원은 영국 세금을 제외해도 2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선수의 통 큰 양보가 있어도 수십억 원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서울의 문도 여전히 열려있다. 여기서 달레마가 발생한다. 데려오고는 싶은데 돈이 풍족하지 않다. 겨울이적시장에서 서울이 들인 이적료는 20억 원이 되지 않는다. 축구는 계속되고 다음 시즌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자금을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없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기성용의 K리그 컴백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MLB닷컴 2020 최고령선수 11인 소개



추신수

38세 추신수 7번째 노장 출루율 0.371 실력 여전

푸홀스·리치 힐 등 80년생 4인 최고령

'추추 트레인'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가 2020시즌 메이저리그 현역선수 중 7번째로 나이 많은 선수가 됐다.

MLB닷컴은 5일(한국시간) ▲2019시즌을 뛰었고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됐거나 마이네리코 계약을 했거나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을 얻었거나 ▲아직 방출되지 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2020시즌 최고령선수 11명을 소개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출생하거나 1990년대부터 활약한 선수들은 전무한 가운데 추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포수 아디에르 몰리나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두 선수 모두 1982년 7월 13일생이다.

MLB닷컴은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추신수의 능력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 연속 146경기 이상 출전했고, 출루능력은 시들지 않았다. 지난해 0.371로 아메리칸리그 출루율 12위에 올랐고, 커리어하이인 24홈런을 터트렸다"며 "올 시즌을 마치면 텍사스와의 7년 계약이 마침내 끝나지만, 또 다시 새로운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출루율 0.371을 올린 선수라면 누구(어느 팀)든 쓰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1980년생이었다. LA 에인절스 1루수 앨버트 푸홀스(1월 16일), 미네소타 트윈스 좌완투수 리치 힐(3월 11일), 뉴욕 양키스 포수 에릭 크라츠(6월 15일), 미네소타 지명타자 빌슨 크루스(7월 1일)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좌완투수 올리버 페레스(1981년 8월 15일), 세인트루이스 우완투수 애덤 웨인라이트(1981년 8월 30일)가 5, 6위였다. 이어 양키스 좌완투수 JA 햄(1982년 10월 19일), 뉴욕 메츠 2루수 로빈슨 카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우완투수 대런 오데이(이상 1982년 10월 22일)가 9위와 공동 10위로 뒤를 따랐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모험 대신 완벽한 클린 연기” 차준환의 푹부레진 출사표

4대륙피겨선수권 오늘 개막... 7일 쇼트프로그램 출전

쿼드러플 점프 비중 줄이고 완성도에 초점 맞춰
평창 올림픽 금메달 하뉴와도 선의의 경쟁 각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19·고려대 입학예정)이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이하 4대륙대회)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의 목표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다. 난이도를 높이는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연기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쿼드러플(4회전) 살코, 프리스케이팅에선 쿼드러플 토티프와 살코를 시도할 예정이다. 2019~2020시즌 초반 쇼트프로그램에서 2개, 프리스케이팅에서 3개였던 쿼드러플 점프의 비중을 줄인 것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차준환은 "무리하게 구성을 높여 리스크를 만드는 것보다 최근에 해왔던 구성으로 깨끗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며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말 마디마디에 나름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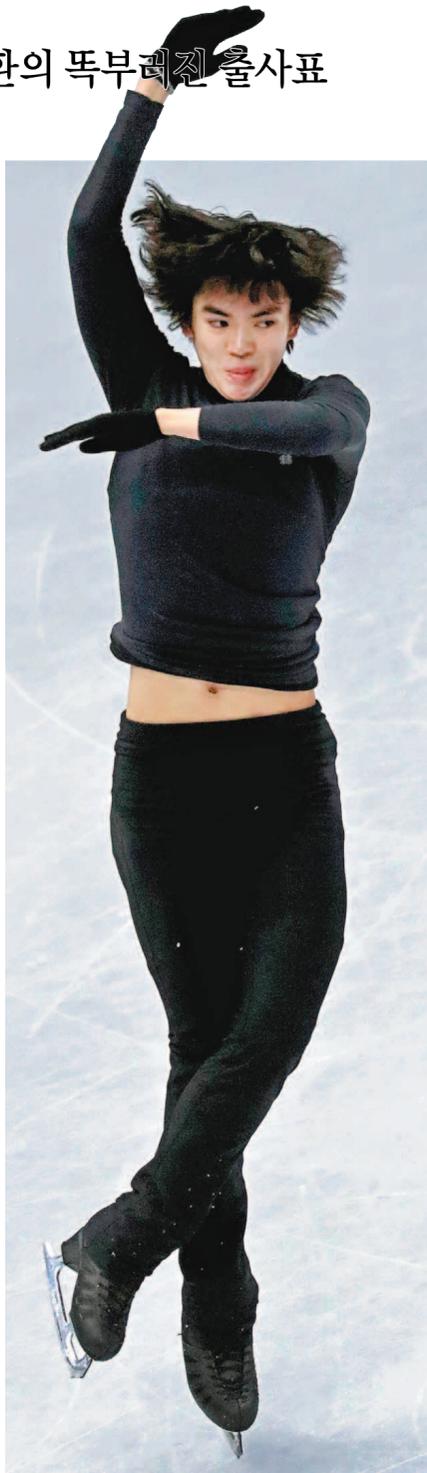
차준환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4대륙대회에서 2009년 이 대회(캐나다 밴쿠버)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이후 한국 선수로는 10년 만의 메달 획득에 도전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 목표를 이루는 듯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부진을 보여 종합 6위로 고배를 마셨다. 뼈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모두 지웠다. 그는 "지난 경기는 다 잊었다"며 "종합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열심히 훈련한 것을 토대로 차분하게 경기에 임하고 싶다. 그동안 연습해온 대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종합선수권대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기술, 예술적인 부분 모두 연습 중"이라고 했다.

이번 대회는 2014소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금메달의 주인공 하뉴 유즈루(일본) 등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대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다수의 피겨스케이팅 팬들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관중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다. 관중들은 4일과 5일 공식 연습 때도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큰 박수를 보냈다.

차준환은 "기분도 새롭고 기쁜 일이다.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다. 연습 때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걱정이긴 하지만, 살려는 마음이 더 크다. 캐나다에서 2~3주간 함께 훈련했던 하뉴와 제이슨 브라운(미국)도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좋은 경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한편 차준환은 이준형(경기일반), 이시형(고려대), 차영환(화정고), 변세중, 경재석(이상 경희대) 등 한국 선수들과 함께 7일 쇼트프로그램, 9일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차준환이 6일부터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선 순위에 짐작하기보다 쿼드러플 점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1차 목표다. 4일 공식 연습에서 스핀 동작을 점검하고 있는 차준환. 목동 | 뉴스IS



《배드민턴》 대표팀 자격 박탈 서승재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

협회 “랭킹 유지되면 상황 봐야”
소속팀 삼성전기 법적다툼 변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3)는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 실낱같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서승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중계약' 논란에 있던 서승재에게 국가대표 강화 훈련 제외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곧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복식 상위랭킹에 있는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 실업팀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다. 다수의 팀이 서승재를 노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그와 가계약에 성공하면서 행선지가 조기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승재가 들인 삼성전기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징계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복식조로 맹활약을 펼친 서승재가 연말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파트너인 최솔규, 채유정도 피해를 보게 됐다. 최솔규는 서승재의 국가대표 남자복식 파트너, 채유정은 혼합복식 파트너다.

그러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5일 "자격정지 외중에도 올림픽 참가 자격 랭킹이 유지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솔규, 채유정이 새 파트너를 구해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이다.

서승재-최솔규는 올림픽 출전 포인트 랭킹에서 7위, 서승재-채유정은 6위에 올라 있다. 올림픽 복식은 오는 4월 말까지 올림픽 출전 포인트에서 8위 안에 오르면 본선에 나선다. 소속팀 삼성전기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차후 상황도 여전히 가변적이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